

전일동향

전일 대비 14.50원 하락한 1,515.8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10원 하락한 1,528.90원에 개장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상장으로 조달할 약 3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환율 하락을 부추기며, 전일 대비 14.50원 하락한 1,515.8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21.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6.62원이다.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06:0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28.90	1531.90	1510.60	1515.80
엔화	943.13	944.71	932.76	936.62	-
유로화	1749.05	1752.28	1725.66	1728.91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3	-3.8	-8
결제환율(수입)	-0.68	-2.65	-5.76	-11.9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한일 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1,5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28.20) 대비 13.45원 하락한 1,513.6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한일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승할 전망이다. 전일 호르무즈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강달러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더해 뉴욕증시 반도체주 하락 여파 속에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질 경우, 원화에 추가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외재료를 소화하며 금일 환율은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외환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인 등 유지되고 있는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13.50 ~ 1526.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172.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45원 ↓
	■ 美 다우지수 : 52925.15, -130.76p(-0.2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63.3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66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